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5월 24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사56:1-8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과 같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한 사람이었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항상 결과는 시대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중에 많은 기적과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이라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 흐름을 따라 갔지만 끝까지는 가지 못하여 사실은 사라져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본은 복음을 알아야 하고 항상 복음을 내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 하나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에 맞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눈이 열리고 이 언약이 가슴에 들어와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1.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1)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2) 그래서 정의와 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지키고 그 언약을 행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 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말씀은 너희는 복음을 지키고 그의 의 곧 언약을 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3) 그 다음 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4) 3절 이후에는 이방인과 씨가 없는 고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자된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는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네가 만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 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너희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5) 6절 이방인에 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7절 내가 너희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6)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방인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 연합하여 나의 종이 되며 나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너희가 전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7) 오늘도 중요한 단어들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면 첫째는 너희는 나의 복음을 지키고 그의 의를 행하라. 복음을 지키고 그의 언약의 피를 행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8) 그 다음은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고자에게도 아들보다 더 귀하고 딸 보다 더 귀한 기념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내 집은 처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으니 누구든지 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입니다.
9) 오늘 하나님은 3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고자와 이방인들입니다. 이3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10)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로 드리는 약속의 예배를 우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자라도 자녀의 축복 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도 누구든지 나의 집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그들의 희생과 번제를 기꺼이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1)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식일은 어떠한가를 한 번 봐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가의 여부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과 같은 응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12) 믿음은 있지만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면 구원은 받았으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 결과가 내 인생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인 것은 인정하지만 내 삶과는 사실은 관계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13)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라면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4)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바탕이 되고 강단을 통하여 받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예비하신 응답과 사람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5) 말씀은 현장의 모든 사람과 사단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더 큰 해방과 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